光復의 表情 1

臨時政府맞는古宮

원한과 혈루를 먹음은채 기피 잠드럿든 옛궁전, 지금은 해방된 리 국기 하늘 놉히 펴득이는 덕수궁(慶雲宮)—광명의 축복 다시커드는 三천만겨레는 이제 종노네거리의 보신각『인경』을 힘차게 울리며, 우리임시정부를 마저드린 광복의 새해를 마젓다。『한양아』 잘잇거라 우리다시 태극기들고 북울리며 돌아오리라—고 떠나든 우리 외국사, 온세상 진동하도록 우리겨레들이 『독립만세』를 웨치든 기미년 그해이, [illegible]고 멀리 해외로떠낫든 우리의지도자,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이제 이옛궁터에 자리를잡고 세로운 국사를 다시의논하게된것이다 이미 깨끗이 몸을 단장하고, 우리태극기를 중심으로 미、소、중、영의 연합국기 위날리는 임시정부의청사, 덕수궁의석조전, 여기에는 새해마저 독립완성의 북소리 힘차게、울릴것을 주검으로써 우리는 기약하자。

삘딩에 二백여명이모히어서 다음의혈서문(血誓文)을 결의 하엿다 ▲信託管理絶對反對、卽時自主獨立要求 ▲民族의自由 獨立의名譽、祖國을 위하야 決死를 決意함

各官公會社의 反託休勤繼續

軍政廳 三十一일도 계속하야 전원이등청하지안코 신탁통치 절대배격의 투쟁을계속하엿다 그러고 一일 하오一시부터시내 배재학교(培材學校)에서 전원이모이여 탁치반대의결의를 크게하기로 되엇다

新年式中止 별항과가치 탁치반대의 파업관계는 신년一일의군정청 신년식은 중지하기로되엇다

電信、電話는繼續

遞信局 통신의중대사명을자각하여서 전신(電信) 전화(電話) 공무(工務)의 三부문만은 종전대로업무를계속하고 그의부문의 五만종업원은三十一일부터 일제히파업을단행하였다

水道와火葬은繼續

서울市廳 三천직원이三十一일에 성명서를내이고 즉시일제히파업을결행하였는바 시민생활에 즉접 영향을 미치는수도 병원 화장장만은사무를계속한다

京電 電車만不得已休運 전차가 백二十만 시민의 유일의발이라는것은 잘알고있으나 흥분된 민중들의파손을 염려하여서 전차의운전만은 부득이정지하고 그와의 다른부문은 시민들의일상생활과 즉접 련게되어있으므로 도저히그사무를 일시도포기할수는없는형편이어서 방금 그대로집무를게속하고잇다

光化門郵便局 전직원이 출근하여서 직장을 직히고잇으나 사무는 전면적으로 정지하고잇다

撼天의獨立萬歲聲

秩序整然한大示威行列

종로로! 종로로! 저 양경이 울리는 종로로!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조선자주독립만세를 소리노피 웨치는 백만시민은 三十一일 대보름날 오후 무시를 기하야 몰밀듯이 종로네거리에 몰려든다 국군 각전문 대학 학생 생도 각관공서원 각단체 각정회에서는『자주독립만세』『신탁제절대배격』의 기빨을 노피내걸고 당당히 진군해온다 아! 그의 모습 씩씩도하다 그의소리 우렁차기도하다 그의 의기 장하기도하다 그의 자주독립만을 향하야 끄까지 싸우겟다—이것이 三천만전민족의 진실한자태이며 피의부르지즘이다 군중을헤치고나와 목이메일듯이 자주독립만세를 부르며 업드러지는 청년이잇는가하면 힌두루마기를입은 백발노인이 땅을치고 통곡을한다 어느듯 태극기를 흔들며 자주독립만세를부르다 그러다가도 누구의지시없이 다가치 애국가를부르다 저동쪽으로부터 대오도 팡팡하게 군중사이를타고 국군이진군가를 소리마처 우렁차게부르며 진군하야 남쪽으로나아간다 그뒤를 이어 군중도질소정연하게 따라슨다 이리하야 남대문을돌아 광화문을 거처 군정청압헤이르러 마침내 독립만세는폭발하고말었다 끗칠줄을모르는 행렬진은 우리의빗나는 五천년역사를 다시금 장식하리라◆사진은 반탁시위행렬광경

臨政指令下 警察은治安에專力

경찰관대표들이 三十一일 경교동 임시정부를 방문하고 금후 전경찰관이 임시정부의 지령밋태서 민중의 치안확보의 중임을 다하겟다는 결의를 표명하엿는바 임시정부로서도 전경찰관이 국민총동원위원회의 지시아래 그중대한 임무를 다할것을 거듭부탁하엿다

六일에는각도자체대회(各道自體大會)를열고 八일에는 중앙대회(中央大會)를 연다

愛婦講演 三일하오一시 한국애국부인회주최로 조선녀자국민당과 기독청년회관에서 시성정치대강연회를 개최하기로되엿다

普專學生 보전학생회에서는 三十일시내 한청

(各界의反對聲)

醫師 새로출발한『서울의사회』(醫師會)에서는전원일치로신탁통치절대반대를결의하엿다

全國初等敎員會 전국초등교육자 임시대회에서는 신탁관리 절대반대를결의하엿는데 정부五

各線列車는運行

反託에揮淚苦役하는交通戰士

三十一일에도 경성역을중심으로한 각선의열차는운행되고있는데 정초에도 다음과가티 운행을계속하게된다 ▲京釜線 釜山行(二回) 大田行(一回) 天安行(二回) 土城行(一回) 開城行(一回) ▲京義線 ▲京元線 ▲京仁線 [illegible] 川行(二回) 水原行(一回) ▲湖南線 木浦行(一回)

鐘路인경은운다

종로 인경이 운다—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하야 우렁차게 울린다 돌엇느나 경술국치이래 근四十년만에 처음드는 그소리를돌엇느냐 신탁관리라는 우리속에 三千만을 집어넛코 재차노예화하려는 억울한 통분을 전세계에 호소하려는듯이 종로 보신각속에 고히 잠들엇든 인경이 이땅에 이해가저무러가는三十一일 오후한시반부터 기운차게 울렷다◆사진은울리는종로인경

[illegible] 개는 제주 [illegible] 을 직히기 [illegible] 치지안는다。[illegible] 직히기에 제 [illegible] 생명을 아 [illegible] 우리는 조 [illegible] 주권을 직 [illegible] 이나 나지 [illegible] 이주권을 직힐 의무를가젓다。

우리는 조선의 파수꾼이다 조선을직히는 충실한 개의 임무를다하자。외적이 올때 우리는 웨처 조선의 혼을불러 이르키자。한데 뭉처서 피와 죽엄으로 항거하자。도적이 우리의 땅을 한거름도 드려노치못하도록—이것이 금년의 일이오 우리민족의 최고의 명령이다。

警察部는執務

京畿道 경기도도청에서도 치안확보의임무를 마튼경찰부직원을 제외한각부각과직원은 전부붐긋게닷고 휴근으로써 신탁통치를배격하엿다

學童新年式中止 一월一일 시내각 초등학교의 원단축하식은 중지하기로되엇스므로 아동들은 등교하지말기를바라고잇다

法院 治安確保、不法彈壓 檢事局만은依然執務

三十一일 三법원에서도전야 부휴근에들엇고 비합작레도를 굿게 표명하엿는데 검사국만은전원이 출근하야 치안질서를 교란하는 일체 행동에대하야는 엄중히 억압할 방침이다

失名記

돈암정(敦岩町) 一五三의一五 김삼규(金三奎)씨의장녀김령자(金슈子十歲)는廿九일청량리동대문사이에서길을잃고몰아오지안는데그아이는남빗방한모에황색저고리흑색치마를입고 외투는못히잇는갈색외루이라한다 발견한사람은동아일보사편집국으로 련락하여주기를바란다

故古下先生葬儀彙報

葬儀는一月五日

흉변의 제一일을 마지한 원동(苑洞)의 고 고하 [illegible] 이른 아침부터 오세창(吳世昌)씨 정인보(鄭寅普)씨를 비롯하야 각계각층의 대표들의 조위객이 위문하엿다 잠종하여. 고혼을 정중히 [illegible] 그런데 장례식일은 一월五일인데 장지의선택은 아직결정하지못하엿다

聯合國憲章託治條項—十(3)

第八十四條

一、管理當局은 信託領土가國際平和及安全維持에 對하야 其本分의義務를 다하도록保證을하며 該當局은 此目的을爲하야 信託領土의 志願軍의協助를어더 管理當局이 全安理事會에對하야 이點에關한義務를 履行하며또한地方自衛를實行하야 信託領土內에 法律과秩序를維持함

第八十五條

一、聯合國은 一切非戰略防區信託協定職務에 關하야 此項信託協定條款을包括하야 更改或修正하되 大會로하야금行事케함

二、信託理事會는大會權力下에서 大會를協助하며 上述의職務를履行함

第十三章 信託理事

◇組織

第八十六條

一、信託理事會는 下記聯合國、會員國으로서 組織함

(가)信託管理領土의 會員國家

(나)第廿三條에 列名한 國家로規定에 照한非信託管理領土者

(다)大會는必要한 數員의非會員國을 選擧하며 任期는 三年으로하고 信託理事會의 總數는聯合國會員 國中領土管理者 皮不管理者間에 平均으로써 分配케함

二、信託理事會의 一理事國家는 一特別合格人員을 派送하야代表함

◇職權

第八十七條

大會及其權力下에잇는信託理事會가職務를履行할時는

(가)管理當局에서送致된 報告를審査함

(나)管理當局이接受希望한請願書를討論함

(다)管理當局은時間을定하고時期를按配하야各信託領土를視察함

(라)信託協定條款에 依하야上述共他의行動을採擇함

第八十八條

信託理事會는 各信託領土居民의 政治經濟社會及敎育進展에關한問題를 單獨으로 議會에就하야 職權範圍內에서擬定하며 各託管領土管理當局은 根據에 應하야 該項問題를 單獨으로大會에向하야 常年報告를提出함 (此項了)

휴지통

콩을부서야 콩엔 밥을 되고 밥콩엔 밥을 담어야되고 술통엔 술을채워야되고 꿀통엔 꿀을너허야되고 염통엔 피가뛰어야되고 그리고휴지통엔 휴지가담거저야할것▲그러나 휴지통도 건설의 새해 통일의새해 독립의 새해를마지하야 어제날까지의 어수선한 묵은휴지는말숙히 치워노핫스니 할일만흔 새해로는 휴지통처분에 귀중한사간을 허비치안케 되기바랜다 ▲올에는독립완성—만을빔원하옵시다

補記 昨日 本面에 新詩『힘을쓰자』의 一篇이 揭載되엇는데 作者 林炳哲氏의氏名이 脫落되엇기 이에補記함

曆

檀紀四二七九年 一月一日 (陰十一月二十八日) (火曜日)

一月의메모

▲一日 國語로電報取扱
▲三日 政治講演大會(女子國民黨主催)
▲五日 故古下宋鎭禹先生葬儀式擧行 全國初等敎育者各道大會開催
▲七日 軍政廳主催現代[illegible]
▲八日 託治反對初等敎育者中央大會開催
▲九日 한글講習會開催
▲十日 國民大會開催
▲二十日 學兵記念日
▲二十八日 醫師考試